

〈Brief Report〉

## 시간적 거리감이 사건의 심각성과 용서 과정에 미치는 영향

김진하      김미정      현명호<sup>†</sup>      허정선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상처받은 사건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객관적 및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이 사건의 심각성 지각과 용서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심리학 관련 수업의 수강생이었으며, 이들에게 피해상황을 묘사하는 지문을 제시하고 난 뒤, 사건에 대해 느끼는 시간적 거리감과 심각성, 용서과정 정도를 측정하였다.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총 135명(남자 36명, 여자 99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시간적 거리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 지각과 용서 국면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는 사건의 심각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사건의 발생 시점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 용서 국면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만으로는 사건을 덜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거나 상대를 용서하는 단계에 이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이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총 156명(남자 55명, 여자 101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이 사건의 심각성 지각과 용서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은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과 각 용서단계를 유의하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이 실제로 언제 발생하였는지 보다 사건을 얼마나 오래전에 일어난 것으로 지각하느냐가 사건의 심각성 지각이나 용서과정에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용서 과정,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 심각성

<sup>†</sup> 교신저자: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용서가 대두되고 있다. 역사, 종교, 철학, 문학뿐만 아니라 법철학에서 사회학까지 여러 영역에서는 일찍이 용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언급해왔으며 이제는 일상에서도 익숙한 용어로 자리 잡고 있다(김광수, 1999). 용서는 대인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의 여파로 일어나는 복잡한 동기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McCullough, Bellah, Kilpatrick, & Johnson, 2001). 즉, 용서는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한 복수동기와 상대를 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줄어들고 긍정적인 관계를 시작하려는 동기처럼 건설적인 동기가 회복되는 것이다. 한편 Enright(2004)는 용서를 정서와 인지와 행동의 복합체로 정의하였다. 즉,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상대를 향한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와 행동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국내에서는 김기범과 임효진(2005)이 해를 가한 자의 행위에 대한 분노와 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해소하는 과정을 용서로 정의하였다.

임상적 치료 장면에서 내담자의 분노와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기법 중 하나로 용서를 적용하게 된 것은 용서가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 때문이다. Freedman과 Enright(1996)의 연구에서는 즉각적인 용서 개입을 받은 성 피해 여성이 대기 통제 집단의 여성보다 용서와 희망을 크게 보고하였고, 불안과 우울은 낮게 보고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의 관계에서 용서의 조절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상황용서와 특질용서의 수준이 높을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영선, 현명호, 차성이, 윤선영, 2010). 이지연(2008)도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은 경험

이 증가하는 것만으로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신뢰감이 향상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뿐만 아니라 용서는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용서 반응은 신체 및 정신 건강의 향상에 기여한 반면 분노나 적대감은 생체 적응성에 영향을 미쳐 교감신경의 각성 수준을 높이고 심혈관, 내분비 및 면역 체계에 부적응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박종효, 2003).

그동안 진행된 연구는 주로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와 같이 범주적인 차원의 행위로 보거나 ‘얼마나 기꺼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지’처럼 전반적인 용서 경향성만을 보는 관점을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현실적인 제한점이 있다. 용서가 권장되는 상담 또는 치료 장면에서 내담자가 현재 용서의 어느 국면에 머물러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으므로써 좀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개입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단일 사건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과 함께 태도, 동기,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손운산, 2008; Worthington, Kuru, Collins, Berry, Ripley, & Baier, 2000) 다양한 용서 과정 모형이 제시되고 있다.

Brandsma(1982)는 용서를 총 4단계로 정의하였는데 상처를 입은 개인은 먼저 첫 단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버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과거의 경험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에 직면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타인의 욕구나 동기, 행동의 원인 등을 살피는데 이러한 세 단계를 거치면서 분노나 원한 등이 점차 감소하여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는 상대에 대한 증오와 복수 동기를 점차 포기하게 된다. 한편 Flannigan(1994)은 상처에 이름 붙이기, 내 상처

로 주장하기, 가해자 비난하기, 힘의 균형 맞추기, 용서 선택하기, 새로운 자아의 탄생까지 용서 과정을 총 6단계로 정의하면서 상처로 인해 흔들린 신념체계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국내에서는 이경순(2008)이 한국 성인의 용서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여 증오를 핵심 현상으로 보고 용서란 증오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이 과정은 증오기, 고투기, 부정적인 정서 표현, 사건의 재정의, 자유 느낌, 감사하는 삶 살아가기로 구성된다.

정성진(2011)은 과거 연구를 토대로 피해자가 증오기 - 고투기 - 안정기 - 재정의기 - 용서기 - 성숙기 중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용서 과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물론 용서가 반드시 여러 연구자가 제시한 다양한 모형대로 이루어지는 일 방향적인 과정은 아니며, 상황 및 개인적 맥락에 따라 초기 단계로 퇴행을 반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해 격렬한 분노 또는 우울을 느끼는 단계에서 곧바로 가해자를 용서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는 없다. 용서는 자신이 받은 상처와 가해자를 향한 분노와 용서를 시도하려는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는 복잡한 역동이고, 타인을 향한 용서에 이르는 길은 매우 험난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적 과정이다. 따라서 용서를 범주적인 차원이 아닌 일련의 유기적인 과정으로 세분하여 보는 관점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용서의 유무 또는 얼마나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가를 묻는 전반적인 용서 수준보다는 용서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용서의 효과나 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용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가해자에 대한 공감(김상현, 금명자, 2011; McCullough et

al., 1997, 1998), 반추(Fincham et al., 2004; Lawler et al., 2003; Paleari, Regalizi, & Fincham, 2005),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지각(Boon & Sulsky, 1997; McCullough et al., 2003), 가해의 고의성 지각(Wohl & Reeder, 2004)이 용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가해 사건 이후 상대방의 반응, 즉 사건 이후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표현하거나 반성하고 사과할 경우에 용서 행동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aumeister, 1998), 가해자와의 친밀도(Girard & Mullet, 1997), 관계 지속 여부(Weiner, Graham, Peter, & Zmuidinas, 1991), 개인의 호의성(Mauger et al., 1996), 신앙심(김지영, 권석만, 2009; Worthington et al., 2003), 정서적 안정성(Ashton, 1998) 등이 용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요인으로 밝혀졌다.

용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밝혀졌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은 그 과정에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McCullough와 Worthington(1995)은 기꺼이 용서하는 마음과 공감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 시간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즉 상처를 받았던 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과 사고를 치료하기 위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처치한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활동에 1시간만 소비한 참가자에 비해 2시간을 소비한 참가자의 용서 경향성이 더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이와 같이 기꺼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유사하게 Worthington 등(2000)은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상대에게 공감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용서 또한 시간의 흐름이 필수적인 요인임을 주장

하였다. 이외에도 McCullough, Fincham과 Tsang (2003)이나 Wohl과 McGrath(2007)의 연구에서도 시간이 용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조되었다.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시간 지각 또한 용서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후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느냐와 상관없이 사건의 발생 시점을 좀 더 멀게 혹은 가깝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Block, 1989; Ross & Wilson, 2002; Wilson & Ross, 2001).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심리적 거리에 따라 정보를 다르게 표상한다(김경욱, 2010;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Trope와 Liberman(2003)은 일상의 예측, 평가, 선택은 가깝거나 먼 미래 혹은 과거의 어떤 지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되며, 시간적 거리감이 이런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변경시킴으로써 사건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McCullough 등(2003)은 시간적 거리감이 가해사건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도와 상대를 회피하거나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진다는 것을 입증했다. Wohl과 McGrath(2007)도 실제 시간은 사건 발생 후 동일하게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더 멀게 느낀 참가자가 가깝게 느낀 참가자보다 복수 또는 회피 동기가 낮은 것으로 보고했다. 다시 말해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간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이 멀수록 용서가 더 잘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적 거리는 용서뿐만이 아니라 사건의 심각성 지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외상적인 노출 후에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본 Pruitt와 Zoellner(2008)의 연구에서 외상사건 영

상을 본 직후보다 48시간이 지난 후에 사건의 심각성을 더 낮게 지각하였다. 반면 앞서 언급한 Wohl과 McGrath(2007)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및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에 따라 심각성을 다르게 지각하는 가를 살펴보았으나 거리감이 가까운 집단과 먼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심각성을 가의 변인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곧 온전한 시간적 거리감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생각해 볼 때, 심각성의 지각 변화는 용서에 필수적이거나 유용한 조건으로 보인다. 가해 혹은 상처를 입은 사건 후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그 사건 외에도 수많은 에피소드를 겪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사건을 향한 반추, 부정적인 감정 및 사고의 강도와 빈도는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상처를 받았던 사건을 ‘생각해보면 별 거 아닌 일’, ‘여전히 화는 나지만 상대가 용서를 구한다면 화해할 수도 있는 일’로 수용하게 된다. 즉 시간적 거리가 심각성의 지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기존 연구를 살펴볼 때, 용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은 고정적으로 작용하는 주요한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시간의 영향력은 간과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용서 과정 및 기타 변인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및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이 심각성 지각과 용서 국면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해 봄으로써 용서 과정과 시간의 영향력에 대해 더욱 포괄적이고 확장된 개념을 제공하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 대상 및 절차

연구대상자는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 먼저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140명이 참여하였으나 이 중 무성의한 응답 및 결측치가 있는 5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13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37세(표준편차 2.25)이었고, 남학생이 36명, 여학생이 99명 참여하였다.

대상자는 본 연구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들은 후 시나리오를 읽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참가자는 시나리오 상에 묘사된 사건의 발생 시점이 '2년 전'과 '1달 전'으로 다르게 표기된 설문지 중 하나를 임의로 배부 받음으로써 각각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가 먼 집단과 가까운 집단으로 배치되었다. 그 결과 최종 자료 분석에 포함된 대상자 수는 시간적 거리가 먼 집단의 경우 69명(남학생 20명, 여학생 49명, 평균 연령 22.04세), 가까운 집단의 경우 66명(남학생 16명, 여학생 50명, 평균 연령 22.71세)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는 Wohl과 McGrath(2007)가 연구에서 사용한 범죄 담화(the transgression narratives) 시나리오를 참고하여 제작되었다. 이 담화는 Berry, Worthington, Parrott, O'Connor와 Wade(2001)가 대인범죄에서 용서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친구의 입사원서가 마감일 이후에 도착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내용을 수정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는 조별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동

료 A로 인해 낮은 점수를 받고 장학금까지 놓치게 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대상자는 이 사건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상상한 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의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158명이 참여하였으나 성실하게 응답한 156명의 자료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참가자의 평균 연령은 22.37세(표준편차 2.25)이고, 남학생이 55명, 여학생이 101명이 참여하였다.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 조건과 동일하게 참가자는 연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설문을 완료하였다.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 조건에 제공된 시나리오는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에 대한 시간 단서를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감 연구의 시나리오와 동일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시나리오를 읽은 후 이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상상할 때, 실제로는 1달 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얼마나 오래 전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지를 '(1)매우 오래전'에서 '(10)최근'으로 평정하고 이 사건이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난다면 어떻게 상상한 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 측정도구

#### 조작 점검

대상자가 조건에 따라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를 다르게 지각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나리오에 묘사된 사건이 얼마나 오래 전에 일어난 일처럼 느껴지는지를 10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의 영향력을 탐색할 때는 시간 조건을 다르게 조작하지 않고, 발생 시점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직접 응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작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 사건의 심각성

사건의 심각성은 McCullough, Worthington과 Rachal(1997)이 사용한 단일 항목의 10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즉 연구대상자는 “위 시나리오에서 묘사된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대해 ‘(1)전혀 심각하지 않다’에서 ‘(10)매우 심각하다’로 평가하였다.

### 용서과정

자신이 피해를 입은 상황을 가정할 때 연구 대상자의 용서 수준이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정성진(2011)이 개발한 용서 과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용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각각 5문항씩 총 6단계-증오기, 고투기, 안정기, 재정의기, 용서기, 성숙기-로 나누어 측정한다. 증오기는 상처 직후 느낀 분노가 심화되면서 상처로 인한 충격과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이 강렬해지는 때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고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는 최악인 상태이다. 고투기는 상처 준 사람을 보거나 상처 받은 사건이 떠오를 때마다 부정적 반응이 반복해서 되살아나는 반추반응이 특징을 이루는 시기이다. 또한 증오나 복수심을 버려야 한다는 생각, 그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는 부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반복해서 떠오르는 부정적인 반응과 충돌하여 괴로워하는 시기이다. 안정기는 제 3자에게 억울함과 부정적인 정서를 털어놓고 위로와 안정을 얻는 시기이다. 재정의기는 상처 준 사람이나 사건을 타인의 관점에서 봄으로써 객관적인 견해를 얻어 더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 시기이다. 다음

로 용서기는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기로 결심함으로 마음이 활기차고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성숙기는 용서를 통해 마음에 자유를 느끼게 되면서 삶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게 되어 매순간을 귀하게 느끼고 감사하는 삶을 살며 상처 받은 사건을 통해 성장했다고 생각하는 시기이다. 각 단계의 내적일치도는 증오기부터 성숙기까지 각각 .88, .90, .90, .86, .93, .90이었다.

정성진(2011)은 이러한 용서과정을 긍정성 여부로 분류한다면 증오기와 고투기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안정기와 재정의기는 중립적인 반응으로, 용서기와 성숙기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용서 과정의 특징을 보다 명확하게 하도록 6단계의 용서과정을 3단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즉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인 증오기와 고투기를 비용서기로, 중립적인 반응의 안정기와 재정의기는 과도기로, 긍정적인 반응의 용서기와 성숙기는 용서기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서과정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조건에서 비용서기, 과도기, 용서기가 각각 .86, .83, .93이었으며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 조건에서는 각각 .88, .83, .89로 나타났다.

### 자료 분석

먼저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의 영향력 검증에서 독립변인이 효과적으로 처치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참가자가 시간 조건(2년 전 발생 조건과 1달 전 발생 조건)에 따라 사건의 발생 시점을 다르게 지각하는지를 확인하였다. 조작 점검

후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가 사건의 심각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서로 다른 용서 국면에 분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주관적인 거리감의 경우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이 사건의 심각성 지각과 각 용서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 분석은 PAS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 결 과

### 조작 점검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과 먼 집단의 대상자가 사건의 발생 시점을 다르게 지각하도록 조작되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집단에 할당된 대상자( $M=5.00$ ,  $SD=1.63$ )는 거리가 먼 집단에 할당된 대상자( $M=6.08$ ,  $SD=2.28$ )보다 최근에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지각하였다,  $t(133)=3.27$ ,  $p < .001$ .

###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가 사건의 심각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는 사건의 심각성 지각을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F(1,133) = .02$ ,  $p = .90$ ,  $\eta^2 = .00$ . 실제로 모든 대상자가 평가한 사건의 심각성은 10점 만점

에 평균 8.42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실제 시간이 흐른 정도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대상자가 시나리오 상의 사건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였음을 의미한다.

###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에 따른 용서 국면의 분포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에 따라 대상자가 각각 다른 용서 국면에 분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교차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검증 결과 시간적 거리에 따라 용서 국면의 분포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chi^2 = .06$ ,  $p = .85$ . 이 중 용서 국면에 해당되는 사례의 빈도수가 1로 최소 기대빈도를 넘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용서기와 과도기만을 대상으로 재분석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하였다. 다시 말해, 사건이 1달 전에 일어난 집단에 속한 대상자와 2년 전에 일어난 집단의 대상자 모두 과도기보다 비용서기 국면에 해당되는 비율이 높았다. 즉 대상자의 약 70%는 실제 시간이 흐른 정도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상대를 향한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비용서기에 머물러 있었다.

표 1. 시간적 거리에 따른 용서 국면의 차이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		전체
	1달 전	2년 전	
비용서기	46 (34.3)	49 (36.6)	95 (70.9)
과도기	18 (13.4)	21 (15.7)	39 (29.1)
전체	64 (47.8)	70 (52.2)	134 (100)

$\chi^2 = .06(df = 1, p = .85)$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과 각 변인의 상관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과 용서 과정 사이의 상관계수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 2에서 모든 변인 간의 상관은 가설과 일치하였다.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은 비용서기단계,  $r = .36, p < .01$ 와 사건의 심각성,  $r = .39, p < .01$ 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사건의 발생 시점을 가깝게 느끼는 대상자는 멀게 느끼는 대상자 보다 사건을 심각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은 과도기단계,  $r = -.21, p < .01$ 와 용서기 단계,  $r = -.25, p < .01$ 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것은 사건의 발생 시점을 가깝게 느끼는 대상자가 멀게 느끼는 대상자보다 과도기 및 용

서기 단계의 점수가 낮았음을 의미한다.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이 심각성 지각 및 용서 과정에 미치는 영향

표 3은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 지각 및 용서과정(비용서기, 과도기, 용서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실시한 단순회귀분석의 결과이다. 분석 결과,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은 사건에 대한 심각성 지각,  $\beta = .39, p < .001$ , 비용서기,  $\beta = .36, p < .001$ , 과도기,  $\beta = -.21, p < .001$ , 용서기,  $\beta = -.25, p < .01$ 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은 사건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비용서기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

표 2.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과 용서 과정 간 상관분석

	1	2	3	4	5
1. 시간적 거리감					
2. 비용서기	.36**				
3. 과도기	-.21**	-.17*			
4. 용서기	-.25**	-.32**	.55**		
5. 심각성	.39**	.56**	-.32**	-.36**	

\* $p < .05$ , \*\* $p < .01$

표 3.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과 심각성 및 각 용서 단계의 회귀분석 결과

모형	심각성		비용서기		과도기		용서기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상수		11.29***		4.11***		10.21***		7.74***
거리감	.39	5.10***	.36	4.67***	-.21	-2.64**	-.25	-3.16**
$R^2$		.15		.13		.05		.06
$F$		26.02***		21.79***		6.94**		10.01**

\*\* $p < .01$ , \*\*\* $p < .001$



치는 반면, 과도기나 용서기와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은 사건에 대한 심각성 지각을 약 15%, 비용서기를 약 13%, 과도기는 약 5%, 용서기는 약 6%를 설명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는 시간적 거리가 사건의 심각성 지각과 각 용서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 조건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사건의 심각성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와 시간적 거리에 따라 해당되는 용서 국면이 달라지는지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는 사건의 심각성 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 용서 국면이 다르지 않았다. 이것은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대를 용서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McCullough & Worthington, 1995; McCullough et al., 2003; Wohl & McGrath, 2007; Worthington et al., 2000)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를 입었던 사건을 점차 수용할 만한 사건으로 지각하고, 부정적인 감정 및 사고의 감소를 넘어 상대를 용서하는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 외에 다른 요인이 필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는 대상자에게 일방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점화시켰고, 피해를 입은 사건의 강도가 사건 및 가해자의 행위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여지를 주지 않을 만큼 강했다

는 방법론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 즉 '2년 전/1달 전'이라는 단순한 점화 방식은 조건에 따른 심각성 지각에 차이를 유발할 만큼 연구대상자의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을 강하게 점화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년 전/1달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상상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두 집단 모두 강한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을 읽자마자 바로 설문에 응답하였기 때문에 심각성 지각 및 용서 국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에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은 사건에 대한 심각성 지각, 비용서기, 과도기, 용서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개인이 사건을 오래전에 발생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사건을 심각하게 지각하는 정도는 낮아지고, 가해자를 용서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 부합한다. 또한 실제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사건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상이하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Block, 1989; Ross & Wilson, 2002; Wilson & Ross, 2001). 그러나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이 과도기와 비용서기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건의 심각성 지각과 비용서기에 비해 상당히 작다. 이것은 대상자가 과도기와 용서기 국면으로 넘어가기에는 시나리오에서 묘사된 사건이 지나치게 심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보다 더 중요한 변인의 존재를 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건의 강도에 대한 조절과 시간 외 변인의 탐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처 혹은 피해를 받았던 사건으로부터 치유되는 과정에는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보다 주관적인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은 사건의 심각성 지각에도 영향을 미쳐 점차로 과거의 사건을 덜 심각한 것으로 지각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러한 과정 또한 상처를 받았던 상황 혹은 상처를 준 상대방을 용서하는 과정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제한점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객관적 및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의 순수한 영향력을 살펴보기에는 시나리오에 묘사된 사건의 강도가 지나치게 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Wohl과 McGrath(2007)는 만약 사건이 가까운 과거가 아닌 먼 과거에 발생했다면 사람들은 가해자를 더 기꺼이 용서할 수 있지만, 이러한 시간의 경과가 심각성 지각의 약화까지 이끌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 연구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한다. 즉, 객관적인 시간적 거리는 심각성 지각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독립 변인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방법론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인지 후속 연구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꾸준히 받아온 장학금을 놓치게 된 상황을 제거하는 등 시나리오의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된 사건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다. 둘째, 시나리오에 제시된 사건의 심각성 혹은 가해자의 행위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모호하게 기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등장인물이 친밀한 관계였음을 기술하거나 가해자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음을 묘사하는 것이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사건의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시간 조건 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생한다면 물

리적인 시간적 거리의 영향력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서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이 심각성과 비용서기에 비해 과도기와 용서기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도 다른 주요한 변인이 존재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 조건의 점화가 약했기 때문인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제한점은 본 연구에서 시간 조건만 조작하였기 때문에 심각성 지각과 시간 지각의 선후관계를 검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가설대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받았던 사건을 덜 심각하게 지각하는 것인지, 혹은 심각한 사건이 아니라는 지각이 그 사건을 좀 더 오래전에 발생한 일처럼 느끼도록 하는 것인지를 탐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주관적인 시간적 거리감이 심각성과 각 용서 단계에 미치는 영향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매개모형 설정을 통해 세 변인의 유기적인 관계를 탐색해봄으로써 연구의 결과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실제 일상 장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시나리오에 묘사된 사건이 대학 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고, 대학생이라면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인 갈등을 실제로 ‘경험’한 것과 ‘경험한 것처럼 상상한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향후 이러한 제한점에 유의하여 연구대상자에게 과거의 외상 경험을 직접 기술하게 하는 방식으로 독립 변인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높이고 의의를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용서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확인하거나 얼마나 용서할 수 있을 것인

가를 물어 전반적인 용서 수준을 살펴본 기존 연구와 달리 용서를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일어나는 내면의 유기적인 행위로 보고 비용서기, 과도기, 용서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관점 및 연구 결과는 심리적인 상처의 치유를 위해 용서가 권장되는 상담 혹은 치료 장면에서 내담자가 현재 어느 국면에 머물러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좀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치료적 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광수 (1999). 용서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경옥 (2010). 특성불안과 시간거리 지각이 대안의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해석수준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659-678.
- 김기범, 임효진 (2005). 용서의 심리적 과정 분석: 관계, 이해, 사과와 인고가 용서의 마 음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 심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41-47.
- 김상현, 금명자 (2011). 공감의 지각된 가해의도에 따라 용서동기에 미치는 효과.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30(1), 325-339.
- 김지영, 권석만 (2009). 용서특질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1), 239-261.
- 라영선, 현명호, 차성이, 윤선영 (2010). 아동기 어머니의 정서적 학대와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및 용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29), 1, 21-34.
- 박중효 (2003). 용서와 건강의 관련성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01-321.
- 손운산 (2008). 용서와 치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경순 (2008). 용서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1), 237-252.
- 이지연 (2008). 용서받기와 용서하기가 심리적 안녕감과 대인신뢰감에 미치는 효과: 완벽주의와 문화성향을 조절변인으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성진 (2011). 용서과정 척도 개발.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Ashton, M. C. (1998). Personality and job performance: The importance of narrow trait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9, 289-303.
-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In D. T. Gilbert, S. T. Fiske, & G. Lindz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4th ed., pp.680-740)*. New York: McGraw-Hill.
- Block, R. A. (1989). Experiencing and remembering time: Affordances, context, and cognition. In I. Levin & D. Zakay (Eds.), *Time and human cognition: A life-span perspective*, 333-363. Oxford, UK: North-Holland.
- Boon, S. D., & Sulsky, L. M. (1997). Attributions of blame and forgiveness: A policy-capturing study.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 19-44.
- Brandsma, J. M. (1982). Forgiveness: A dynamic, theological, and therapeutic analysis. *Pastoral Psychology*, 31, 41-50.
- Enright, R. D. (2004). 용서는 선택이다. (채규만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2001에 출판).
- Flanigan, B. J. (1994). *Forgiving the unforgivable*:

- Overcoming the bitter legacy of intimate wounds.*  
Foster City, CA: IDG Books Worldwide.
- Fincham, F. D., Beach, S. R., & Davila, J. (2004).  
Forgiveness and conflict resolution in marriag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8*, 72-81.
- Freedman, S. R., & Enright, R. D. (1996).  
Forgiveness as an intervention goal with incest  
survivo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 982-991.
- Girard, M., & Mullet, E. (1997). Forgiveness in  
adolescents, you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4*, 209-  
220.
- Lawler, K. A., Younger, J. W., Piferi, R. L.,  
Billington, E., Jobe, R., Edmondson, K., &  
Jones, W. H. (2003). A change of heart:  
Cardiovascular correlates of forgiveness in  
response to interpersonal conflic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6*, 373-393.
- Mauger, P. A., Saxon, A., Hamill, C., & Pannell,  
M. (1996, March). *The relationship of forgiveness  
to interpersonal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Southea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Norfolk, VA.
- McCullough, M. E., Bellah C. G., Kilpatrick S.  
D., & Johnson J. L. (2001). Vengefulness:  
Relationships with forgiveness, rumination,  
well-Being, and the big f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601-610.
- McCullough, M. E., Fincham, F. D., & Tsang, J.  
(2003). Forgiveness, forbearance, and time:  
The temporal unfolding of transgression  
related interpersonal motiv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540-557.
- McCullough, M. E., Rachal, K. C., Sandage, S. J.,  
Worthington, E. L., Brown, S. W., & Hight,  
T. L. (1998).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II. Theoretical elaboration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1586-1603.
- McCullough, M. E., & Worthington, E. L. (1995).  
Promoting forgiveness: A comparison of two  
brief psychoeducational group interventions  
with a waiting-list control. *Counseling and  
Values, 40*, 55-68.
- McCullough, M. E., Worthington, E. L. Jr., &  
Rachal, K. C. (1997). Interpersonal forgiving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2), 321-336.
- Paleari, F. G., Regalia, C., & Fincham, F. D.  
(2005). Marital quality, forgiveness, empathy,  
and rumination: A longitudina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1*,  
368-378.
- Pruitt, L. D., & Zoellner, L. A. (2008).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An analogue  
investigation of the aftermath of trauma  
exposur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 253-  
262
- Ross, M., & Wilson, A. E. (2002). It feels like  
yesterday: Self-esteem, valence of personal past  
experiences, and judgments of subjective  
dis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792-803.
-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3), 403-21.
- Trope, Y., Liberman, N., & Wakslak, C. (2007).  
Construal levels and psychological distance:  
Effects on representation, prediction,

- e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 83-95.
- Weiner, B., Graham, S., Peter, O., & Zmuidinas, M. (1991). Public confession and forgiveness. *Journal of Personality*, 59, 281-312.
- Wilson, A. E., & Ross, M. (2001). From chump to champ: People's appraisals of their earlier and present selv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572-584.
- Wohl, M. J. A., & McGrath, A. L. (2007). The perception of time heals all wounds: Temporal distance affects willingness to forgive following an interpersonal trans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3, 1023-1035.
- Wohl, M. J. A., & Reeder, G. D. (2004). When bad deeds are forgiven: Judgments of morality and forgiveness for intergroup aggression. In J. P. Morgan (Ed.), *Focus on aggression research*(pp.59-74). New York: Nova Science.
- Worthington, E. L., Jr. (2003). Hope-focused marriage. Recommendations for researchers and church worker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1, 231-239.
- Worthington, E. L. Jr., Kuru, T. A., Collins, W., Berry J. W., Ripley. J. S., & Baier, S. N. (2000). Forgiving usually takes time: A lesson learned by studying interventions to promote forgivenes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28, 3-20.
- 1 차원고접수 : 2012. 3. 29.  
수정원고접수 : 2012. 5. 17.  
최종게재결정 : 2012. 8. 29.

## **The Effects of Temporal Distance on Perceived Offense Severity and the Forgiveness Process**

**Jin-Ha Kim    Mi-Jeong Kim    Myoung-Ho Hyun    Jeong-Seon Heo**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objective and subjective temporal distance on perceived offense severity and the forgiveness process. Participants were university students, each of whom was given a packet that contained the transgression narratives. They were then asked to read the situation and imagine that the event had actually happened to them, after which they assessed the temporal distance, offense severity, and the forgiveness process. In the group of objective temporal distance, the sample of 135 university students (36 men and 99 women) determined the objective temporal distance based on perceived offense severity and the forgiveness process. However, objective temporal distance did not affect the perceived offense severity and made no difference in the phases of the forgiveness proc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f simply time has passed, it is not enough to lower the perceived offense severity or to forgive with greater willingness. In the group of subjective temporal distance, the sample of 156 university students (55 men and 101 women) determined the influence of subjective temporal distance on offense severity and the forgiveness process. The results showed that subjective temporal distance affected the perceived offense severity and the forgiveness proc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feel relatively distant from an event than the actual duration of time since the event, in terms of the effect on perceived offense severity and the forgiveness proces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forgiveness process, temporal distance, objective temporal distance, subjective temporal distance, perceived offense severity